

帶下의 治療에 多用되는 藥物에 對한 文獻的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學教室
金庚淑, 李昌勳, 曹禎焄, 張峻福, 李京燮

ABSTRACT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single herb for treatment of colporrhea

Kyung-Sook Kim, Chang-Hoon Lee, Jung-Hoon Cho,
Jun-Bock Jang, Kyung-Sub Lee

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make a basis of in vivo or clinical study about colporrhea.

Methods : This study is based on Yang's study, An investigation on the prescriptions of colporrhea(1999). We investigate the prescriptions in the Yang's study and examine the frequency of mentioned single herb. Also we investigate the herb's classification.

Results and Conclusion :

1) Single herb frequently used in the prescriptions was as follows. ((- Frequency)
Paeoniae Radix Alba白芍藥(16), Glycyrrhizae Radix甘草(15), Poria白茯苓(13),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Citri Pericarpium陳皮(11),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白朮(10), Zingiberis Rhizoma乾薑, Atractylodis Rhizoma蒼朮, Ailanthi Cortex
樗根白皮, Phellodendri Cortex黃柏, Ginseng Radix人蔘, Cyperi Rhizoma香附子(9),
Dioscoreae Rhizoma山藥, Corni Fructus山茱萸, Bupleuri Radix柴胡, Cnidii Rhizoma川
芎, Gardeniae Fructus梔子(8), Rehmanniae Radix preparat熟地黃, Pinelliae Rhizoma半
夏(7), Foeniculi Fructus小茴香, Scutellariae Radix黃芩, Angelicae dahuricae Radix白
芷, Cinnamomi肉桂(5), CortexAlismatis Rhizoma澤瀉, Moutan Cortex牡丹皮, Aconiti
iateralis preparata Radix附子, Plantaginis Semen車前子(4), Ostreae Concha牡蠣,
Euphorbiae pekinensis Radix大戟, Aucklandiae Radix木香, Rhei Radix et Rhizoma大
黃, Ledebouriellae Radix防風, Astragali Radix黃芪, Rehmanniae Radix生地黃, Daphnis
genkwa Flos芫花, Evodiae Fructus吳茱萸, Euphorbiae kansui Radix甘遂(3)

2) Herbs specifically frequently used in the prescriptions of colporrhea were as follows.

Atractylodis Rhizoma蒼朮, Ailanthi Cortex樗根白皮, Phellodendri Cortex黃柏, Cyperi Rhizoma香附子, Bupleuri Radix柴胡, Gardeniae Fructus梔子

3) Herbs frequently used were classified by herbal medicine's classification. The result was as follows. ((-The number of herbs)

補益藥(19), 清熱藥(18), 解表藥(10), 收澁藥(9), 溫裏藥(7), 理氣藥(6), 利水滲濕藥(6), 瀉下藥(5)

Key word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colporrhea, prescriptions of colporrhea

I. 서론

帶下는 '縱帶脈以下'의 뜻으로 여성성기의 분비물을 總稱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帶下는 성기분비물이 증가하여 질 외구까지 流出되어 외음부 또는 그 부근을 濕潤 또는 汚染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생리적인 성기분비물은 성기내벽을 항상 濕潤시키기는 하나 外陰部까지 流出될 정도로 양이 많지 않은 것이 정상이다. 만약 그 양이 증가하여 외음부까지 유출하면 이것은 病的인 帶下로서 性器에 病變이 있음을 의미한다¹⁾.

한의학에서 帶下는 《素門 · 骨空論》²⁾에서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癥取"라고 기록되었으며 傳³⁾는 '而帶名者 因帶脈 不能約束 而有此名 故以名之'라 하여 帶下의 病名을 說하였다. 帶下의 韓方의 治療原則은 그 原因이 濕熱 혹은 痰濕이 胞宮에 下注하는 경우는 燥濕化痰의 治療를 선택하고, 정신적 자극에 기인하는 경우는 調肝理氣를 위주로 한다. 脾腎이 虛한 경우에는 補氣回陽하면서 淡滲利濕하는 方劑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¹⁾.

지금까지 대하에 대한 연구로는 임상적 연구로 조⁴⁾ 등의 藥針治療에 대한 臨床的 考察이 있다. 文獻的 연구로는 帶下의 原因에 대한 文獻的 연구들⁵⁻⁸⁾이 있고, 治療에 대해서는 양⁹⁾ 등의 黃帶下

의 原因, 症狀, 治法, 治方에 대한 文獻的 考察, 성¹⁰⁾ 등의 帶下治方에 대한 文獻的 考察, 백¹¹⁾ 등의 白帶下의 治方에 관한 考察, 양¹²⁾의 帶下의 처방에 대한 文獻的 考察 등이 있다. 위의 보고들은 帶下의 治方에 관한 文獻的 研究로 성 등의 研究에서 帶下治方에 사용된 藥물을 조사하여 本草학적 분류로 분석해 본 경우가 있었으나 개개의 처방구성 藥물만을 분석한 경우는 아니며, 백¹¹⁾ 등의 연구에서 처방을 분석하여 보고하였으나 백대하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저자 등은 帶下의 處方에 관한 文獻的 考察 중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인 양¹²⁾의 연구에서 수집된 處方을 조사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藥물을 알아보고 이후의 실험연구나 임상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여 약간의 智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론

1. 자료조사방법

1) 자료조사

양¹²⁾의 帶下의 處方에 관한 文獻的 考察을 근거로 하여 언급된 古典의 處方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고전은 양¹²⁾의 논문의 27종 중에서 확인 가능한 21종이며(Table 1), 수집된 처방은 55종이었다. 확인이 안 된 6종은 서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경우와, 서적내용에 그 처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였다.

Table 1. Bibliography on this study

醫學綱目	傅青主女科	婦人良方大全	沈氏尊生書	醫學入門	醫宗金鑑
丹溪心法	萬病回春	金匱要略	聖濟總錄	太平聖惠方	濟陰綱目
普濟方	醫學正傳	景岳全書	鄉藥集成方	張氏醫通	
太平惠民和劑局方		婦科證治	女科切要	萬氏濟世良方	

2) 연구방법

(1) 帶下의 治療에 사용된 처방을 문헌조사를 통해 찾고, 각각의 약물구성을 조사하였다.

醫學綱目¹⁴⁾의 乳香散, 檣皮丸, 固腸丸, 地榆膏, 傅青主女科³⁾의 完帶湯 加減逍遙

散, 女科切要³²⁾의 內補丸, 苦楝丸, 十棗湯, 小胃丹, 神佑丸 萬氏濟世良方³³⁾의 加味二陳湯 固眞湯 固腸丸 檣根白皮丸 처방이 있었고(Table 2), 각 처방의 구성약물을 조사하였다(Table 3).

Table 2. Prescriptions of colporrhea in each bibliography

Bibliography	Prescription
1. 醫學綱目 ¹⁴⁾	乳香散 檣皮丸 固腸丸 地榆膏
2. 傅青主女科 ³⁾	完帶湯 加減逍遙散
3. 婦人良方大全 ¹⁵⁾	補中益氣湯加山梔子 小柴胡湯加山梔子防風龍膽瀉肝湯 六味丸
4. 沈氏尊生書 ¹⁶⁾	側柏檣皮丸
5. 醫學入門 ¹⁷⁾	蒼栝辛芎散
6. 醫宗金鑑 ¹⁸⁾	吳茱萸湯加防風梔子 五味消毒飲
7. 丹溪心法 ¹⁹⁾	固腸丸
8. 萬病回春 ²⁰⁾	四仙散 止帶丸 加減八物湯 五積散 固經丸 香朮丸 收帶六合丸 雙百丸
9. 金匱要略 ²¹⁾	土瓜根散
10. 聖濟總錄 ²²⁾	三良散 白薇丸 肉苳菴丸
11. 太平聖惠方 ²³⁾	土瓜根散
12. 濟陰綱目 ²⁴⁾	萬安散 玉仙散
13. 普濟方 ²⁵⁾	伏龍散
14. 醫學正傳 ²⁶⁾	苦楝丸
15. 景岳全書 ²⁷⁾	朱砂安神丸 清心蓮子飲 直指固精丸 固陰煎
16. 鄉藥集成方 ²⁸⁾	白芷散 地黃元 白芷暖宮丸
17. 張氏醫通 ²⁹⁾	越鞠丸 大補丸
18. 太平惠民和劑局方 ³⁰⁾	七氣湯 腎氣丸
19. 婦科證治 ³¹⁾	完帶湯 桂附八味丸 加味帶下湯
20. 女科切要 ³²⁾	內補丸 苦楝丸 十棗湯 小胃丹 神佑丸
21. 萬氏濟世良方 ³³⁾	加味二陳湯 固眞湯 固腸丸 檣根白皮丸

Table 3. Herbs in each prescription of colporrhea

No.	Prescription	Herbs
1	乳香散	草果 乳香
2	樗皮丸	芍藥 良薑 黃蘗* 椿根皮**
3	固腸丸	椿根皮**
4	地榆膏	地榆
5	完帶湯	白朮 山藥 車前子 蒼朮 人蔘 白芍藥 甘草 柴胡 陳皮 荊芥
6	加減逍遙散	茯苓 白芍藥 甘草 柴胡 陳皮 茵陳 梔子
7	補中益氣湯加味	黃芪 人蔘 白朮 當歸 陳皮 柴胡 山梔子***
8	小柴胡湯加味	柴胡 半夏 黃芩 人蔘 甘草 山梔子*** 防風
9	龍膽瀉肝湯	龍膽草 澤瀉 車前子 木通 生地黃 當歸 山梔仁*** 黃芩 甘草
10	六味丸	熟地黃 山藥 山茱萸 白茯苓 澤瀉 牡丹皮
11	側柏樗皮丸	樗根白皮** 香附子 白芍藥 白朮 川黃連 側柏葉 白芷
12	蒼栝辛芍散	蒼朮 黃柏 辛夷 川芎 南星 滑石 半夏 牡蠣 黃芩
13	吳茱萸湯加味	當歸 肉桂 吳茱萸 牡丹皮 半夏 麥門冬 防風 細辛 蘗本 薑姜** 茯苓 木香 甘草
14	五味消毒飲	金銀花 野菊花 蒲公英 紫花地丁 柴背天葵子
15	固腸丸	椿根皮**
16	四仙散	蒼朮 白芷 川芎 大附子***
17	止帶丸	當歸 川芎 白朮 山藥 杜沖 香附 青黛 人蔘 牡蠣 破古紙 續斷 椿根皮**
18	加減八物湯	當歸 川芎 白芍藥 生地黃 人蔘 白朮 茯苓 山藥 杜沖 香附 甘草 烏梅
19	五積散	白芷 當歸 川芎 陳皮 厚朴 蒼朮 半夏 白芍藥 枳殼 桔梗 乾薑 官桂 麻黃 甘草 香附子 小茴香 吳茱萸
20	古經丸	黃柏 香附 山梔*** 苦參 白朮 白芍藥 山茱萸 椿根皮** 貝母 乾薑 貝龜板#
21	香朮丸	香附子 蒼朮 陳皮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
22	收帶六合丸	白朮 蒼朮 白茯苓 陳皮 當歸 白芍藥 熟地黃 半夏 椿根白皮** 牡丹皮 黃柏 防風 甘草 升麻
23	雙百丸	石灰 白茯苓
24	土瓜根散	土瓜根 芍藥 桂枝 蟪蟲
25	三良散	吳茱萸 寒食麵 乾薑

26	白薇丸	白薇 赤芍藥 烏賊魚骨 [#]
27	肉苳蔻丸	肉苳蔻 附子 白石脂
28	土瓜根散	土瓜根 芍藥 桂枝 蟪蟲
29	萬安散	黑丑 小茴香 木香
30	玉仙散	乾薑 香附子 白芍藥 甘草
31	伏龍散	伏龍肝
32	苦楝丸	苦楝 茴香 當歸
33	朱砂安神丸	生地黃 朱砂 當歸 甘草 黃連
34	清心蓮子飲	黃芩 麥門冬 地骨皮 車前子 甘草 人參 黃芪 石蓮子 柴胡 茯苓
35	直指固精丸	黃柏 知母 牡蠣 龍骨 芡實 山茱萸 遠志 茯苓
36	固陰煎	人參 熟地黃 山藥 山茱萸 遠志 炙甘草 五味子 兔絲子
37	白芷散	白芷 海螵蛸 胎髮燒灰
38	地黃元	熟地黃 山茱萸 燕薹仁 白芍藥 代赭石 乾薑 白殭蠶 琥珀
39	白芷暖宮丸	禹餘糧 乾薑 芍藥 川椒 白芷 阿膠 艾葉 川芎
40	越鞠丸	香附子 蒼朮 川芎 梔子 神穀
41	大補丸	厚黃柏
42	七氣湯	半夏 人參 肉桂 甘草
43	腎氣丸	熟地黃 山藥 山茱萸 白茯苓 牡丹皮 澤瀉 五味子
44	完帶湯	蒼朮 白朮 山藥 蔓蔘 車前子 白芍藥 陳皮 柴胡 荊芥穗 ⁺
45	桂附八味丸	熟地黃 澤瀉 茯苓 山茱萸 山藥 附子 肉桂 小茴香 補骨脂 鷄冠花
46	加味帶下湯	土茯苓 銀花 ^{###} 陳皮 龍膽草 梔子 木通 大黃 茯苓 牛膝
47	苦楝丸	苦楝子 茴香 當歸
48	十棗湯	芫花 甘遂 大戟
49	小胃丹	芫花 甘遂 大黃 大戟 黃柏
50	神佑丸	甘遂 芫花 大黃 大戟 白丑 青皮 陳皮 木香 檳榔 輕粉
51	內補丸	鹿茸 兔絲子 砂蒺藜 紫苑草 黃芪 肉桂 桑螵蛸 肉從蓉 制附子 ⁺⁺⁺ 白茯苓 白蒺藜
52	加味二陳湯	陳皮 半夏 茯苓 甘草 蒼朮 白朮 升麻 柴胡
53	固真湯	人參 黃柏 黃芩 白蒺藜 乾薑 甘草 郁李仁 柴胡 陳皮
54	固腸丸	檣根白皮 ^{**}
55	檣根白皮丸	檣白皮 ^{**} 山茱萸 苦蔘 香附子 龜板 梔子 黃柏 乾薑 貝母 白芍藥 白朮

* : 본초학¹⁹⁾에 근거하여 黃柏의 異名으로 黃柏으로 정리하였다.

** : 모두 檣根白皮로 정리하였다. *** : 梔子로 정리하였다.

+ : 荊芥로 정리하였다. ++ : 乾薑으로 정리하였다. +++ : 附子로 정리하였다.

: 龜板이다. ## : 海螵蛸의 異名이다. ### : 金銀花다. ^ : 黃柏으로 정리하였다.

(2) 사용된 약물의 사용횟수를 살펴 보았다.

10회 이상 사용된 약물을 보면 芍藥이 1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甘草가 15회, 白茯苓이 13회, 陳皮와 當歸가 11회 白朮이 10회 순으로 사용되었다(Table 4).

Table 4. Herbs frequently used and frequency

Herbs	Frequency
芍藥	16
甘草	15
白茯苓	13
陳皮, 當歸	11
白朮	10
蒼朮, 乾薑, 人蔘, 黃柏, 香附, 樗根白皮	9
柴胡, 山藥, 梔子, 川芎, 山茱萸	8
熟地黃, 半夏	7
小茴香, 黃芩, 白芷, 肉桂	5
澤瀉, 牡丹皮, 附子, 車前子	4
牡蠣, 大戟, 木香, 大黃, 防風, 黃芪, 生地黃, 芫花, 吳茱萸, 甘遂	3
海螵蛸, 麥門冬, 龍膽草, 苦參, 龜板, 五味子, 杜沖, 蟻蟲, 黃連 荊芥, 金銀花, 兔絲子, 木通, 貝母, 升麻, 苦楝, 遠志, 桂枝, 土瓜根	2
石蓮子, 石灰, 白蒺藜, 蕪荑仁, 桑螵蛸, 柴背天葵子, 細辛, 砂蒺藜, 檳榔, 白薇, 白僵蠶, 伏龍肝, 補骨脂, 白蒺花, 白丑, 官桂, 續斷, 蔓藤, 牛膝, 禹餘糧, 郁李仁, 麻黃, 白石脂, 乳香, 代赭石, 肉荳蔻, 肉從蓉, 桔梗, 茵陳, 紫菀草, 紫花地丁, 赤芍藥, 朱砂, 枳殼, 地骨皮, 知母, 地榆, 鷄冠花, 龍骨, 輕粉, 鹿茸, 川椒, 青黛, 青皮, 草果, 側柏葉, 南星, 胎髮燒灰, 藁本, 土茯苓, 辛夷, 破古紙, 艾葉, 蒲公英, 寒食麵, 野菊花, 芡實, 良薑, 琥珀, 滑石, 烏梅, 神穀, 黃連, 阿膠, 厚朴, 黑丑	1

(3) 다용된 약물을 본초학¹³⁾에 근거하여 본초학적인 분류로 묶어서 많이 사용된 분류를 조사하였다.

가장 빈용된 약물은 補益藥이었고, 다음으로 빈용된 약물은 淸熱藥, 解表藥, 收澁藥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Herbal medicine's classification of mentioned herbs

Classification		Herb
解表藥(10)	發散風寒(8)	麻黃 桂枝 荊芥 白芷(5) 防風 藁本 辛夷 細辛
	發散風熱(2)	柴胡(8) 升麻
清熱藥(18)	清熱瀉火藥(2)	知母 梔子(8)
	清熱燥濕藥(5)	黃芩(5) 黃連 黃柏(9) 梔子 苦參
	清熱涼血藥(3)	牡丹皮 赤芍藥 生地黃
	清熱解毒藥(6)	金銀花 蒲公英 紫花地丁 土茯苓 野菊花 青黛
	清虛熱藥(2)	白薇 地骨皮
瀉下藥(5)	攻下藥(1)	大黃
	潤下藥(1)	郁李仁
	峻下逐水藥(3)	甘遂 大戟 芫花
芳香化濕藥(3)		蒼朮(9) 厚朴 草果
利水滲濕藥(6)	利水退腫藥(2)	茯苓(13) 澤瀉
	利尿通淋藥(3)	車前子 木通 滑石
	利濕退黃藥(1)	茵陳
溫裏藥(7)		附子 乾薑(9) 肉桂(5) 吳茱萸 川椒 良薑 小茴香(5)
理氣藥(6)		陳皮(11) 青皮 木香 枳殼 香附子(9) 苦楝
消食藥(1)		神麩
驅蟲藥(1)		檳榔
止血藥(4)	涼血止血藥(2)	地榆 側柏葉
	溫經止血藥(2)	艾葉 伏龍肝
活血祛瘀藥(3)		川芎(8) 乳香 牛膝
化痰止咳平喘藥(4)	溫化寒痰藥(2)	半夏(7) 南星
	清化熱痰藥(2)	桔梗 貝母
安神藥(4)		朱砂 龍骨 琥珀 遠志
平肝藥(4)	平肝息風藥(1)	白僵蠶
	平肝潛陽藥(3)	牡蠣 代赭石 白蒺藜
補益藥(19)	補氣藥(6)	人蔘(9) 蔓蔘 黃芪 白朮 山藥(8) 甘草 (15)
	補陽藥(7)	鹿茸 杜沖 續斷 補骨脂 兔絲子 肉從蓉 破古紙
	補血藥(4)	當歸(11) 熟地黃(7) 白芍藥(16) 阿膠
	補陰藥(2)	麥門冬 龜板
收澀藥(9)	收澀藥	
	止瀉藥(4)	肉荳蔻 烏梅 禹餘糧 樗根白皮(9)
	澀精 縮尿 止帶藥(5)	五味子 山茱萸(8) 桑螵蛸 海螵蛸 芡實
外用藥(1)		輕粉
기타(11)		鷄冠花 蕪荑仁 白石脂 白丑 石蓮子 石灰 胎髮燒灰 土瓜根 寒食麵 黑丑 蟻蟲

Ⅲ. 고찰

帶下는 부인과적 증상 가운데서 가장 흔하며 환자 중 최소 1/3이상에서 발생한다³⁶⁾. 帶下라 함은 縱帶脈而下的 뜻으로 《素門·骨空論》²⁾에서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癥聚”라 했고, 《素門·玉器眞臧論》²⁾에서 “脾傳之身病 名曰疝 少腹 免熱而痛, 出白一名蟲”라 하여 처음으로 기록된 이래 帶下一門으로 여성의 性器疾患을 觀察 治療하였다. 巢³⁴⁾는 “帶下五色候”라 하여 五臟의 병기에 따라 五色으로 구분하여 배속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帶下를 분류하여 언급하였다. 廣義의 帶下는 婦人의 月經病, 妊娠病, 産後病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 질병은 모두 束帶以下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金匱要略》²¹⁾에서 “婦人爲病, 因虛積冷結氣, 爲諸經水斷絕, 至有歷年, 血寒, 積結胞門, 寒傷經絡凝堅, 在上, 嘔吐涎唾 …, 在中盤結, 繞臍寒疝 …, 在下未多…, 經候不均…, 此皆帶下…”라고 말하고 있다. 《史記》에서 “婦人科醫가 생겨나 ‘帶下醫’가 되었다”라 한 것도 바로 廣義의 帶下를 설명한 것이다^{5,8,35)}. 狹義의 帶下는 질도에서의 白, 黃, 靑, 黑, 赤白混合 등의 汚濁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의 유출이 있는 것을 帶下病이라고 한다. 《古今醫方》에서는 ‘流穢物이 或은 白涕와 같고 或은 紅津과 같고 혹은 누렁기가 爛瓜와 같고, 或은 푸르기가 泥澤과 같고, 或은 검기가 衄血과 같다’라고 하였다. 帶下라 함은 보통 狹義의 帶下를 지칭하는 것이다^{8,35)}.

서양의학적으로 帶下를 크게 생리적 대하와 병적 대하로 나누는데 생리적

대하는 자궁경관의 분비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질점막의 상피세포에서 삼출되는 소량의 삼출물과 월경전기에 난관의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소량의 삼출물과 외음부 및 질전정에서 분비되는 분비물도 외음부의 건조를 방지할 정도의 소량이며, 전정부의 bartholin선은 성적 흥분시에만 다량의 투명 점액을 분비할 뿐이며 자궁체부 또한 다수의 분비선이 있기는 하나 분비기가 되어야 약 알칼리성의 분비물을 분비하며 양은 근소하여 질내까지 유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리적 대하로는 경관 분비물이 주요한 의의가 있다. 병적인 대하는 성상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양이 증가하는 기능성 대하, 양의 증가 뿐만 아니라 성상이 농성, 혈성을 띄는 기질성 대하로 대별하고 있다. 기능성 대하의 원인은 난소의 내분비 기능 장애에 기인하며, 자궁 후굴의 경우에 초래되는 울혈성 대하도 그 성상에는 변화가 없고 양만 증가하는 기능성 대하에 속한다. 기질성 대하는 임균, 결핵균 등에 의한 외음부 및 질의 염증, 진균이나 트리코모나스 등에 의한 질염, 자궁경관염, 자궁내막염, 난관염, 난소염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성의 자궁종양, 육종, 융모상피종 등에 기인한다¹⁾. 기질성 대하의 치료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경우는 metronidazole을 사용하고, 진균에 의한 경우는 항진균약제를 사용하거나. 염증성 질염의 경우 clindamycin크림을 사용한다. 자궁경관염인 경우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다.³⁶⁾

帶下에 관한 文獻的 연구로는 이⁷⁾ 등의 婦人帶下의 병인병리 및 불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최⁵⁾ 등의 帶

下의 原因에 관한 文獻的 考察, 유⁶⁾의 帶下 유발 原因의 文獻的 考察, 장⁸⁾ 등의 帶下에 대한 동서의학적 비교 등 帶下의 原因과 病因病理에 관한 연구가 있다. 帶下의 治方에 관한 연구로는 양⁹⁾ 등의 黃帶下의 原因, 症狀, 治法, 治方에 대한 文獻的 考察), 성¹⁰⁾ 등의 帶下治方에 대한 文獻的 考察, 백¹¹⁾ 등의 白帶下의 治方에 관한 考察, 양¹²⁾의 帶下의 處方에 대한 文獻的 考察 등이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대하의 원인, 치법, 처방에 대한 문헌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처방 내용 중 각각의 약물에 대한 조사는 없어 최근 양¹²⁾의 논문에서 연구된 治方을 조사하여 帶下의 治療에 많이 사용되는 약물을 알아보았다.

漢代의 金匱要略부터 靑代의 女科切要까지 총 21권을 조사하였다. 帶下의 治療에 많이 사용된 처방은 固腸丸이 3회로 가장 많았고, 苦楝丸, 完帶湯, 土瓜根散이 각각 2회씩 사용되었고, 이외의 처방은 1회씩 언급되었다.

많이 사용된 약물은 白芍藥이 16회로 가장 많았고, 甘草가 15회, 白茯苓이 13회, 陳皮, 當歸가 11회, 白朮이 10회, 蒼朮, 乾薑, 人蔘, 黃柏, 香附, 檮根白皮가 9회, 柴胡, 山藥, 梔子, 川芎, 山茱萸가 8회, 熟地黃, 半夏가 7회, 小茴香, 黃芩, 肉桂, 白芷가 5회, 澤瀉, 牡丹皮, 附子, 車前子가 4회, 牡蠣, 大戟, 木香, 大黃, 防風, 黃芪, 生地黃, 芫花, 吳茱萸, 甘遂 등이 3회, 海螵蛸, 麥門冬, 龍膽草, 苦參, 龜板, 五味子, 杜沖, 荊芥, 金銀花, 兔絲子, 木通, 貝母, 升麻, 苦楝, 遠志, 黃連, 土瓜根, 蠶蟲, 桂枝 등이 2회씩 사용되었고, 이외의 약물들은 1회씩 언급되었다. 이중 특히 檮根白皮는 澁精止帶縮

尿藥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다용된 약물이다. 단방처방에 사용된 약물은 檮根白皮, 地榆, 伏龍肝, 黃柏 등이었다.

성¹⁰⁾ 등의 帶下의 治方에 관한 연구에서 檮根白皮는 地榆와 더불어 단방약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약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地榆는 단방약으로 쓰였지만 그 활용빈도가 1회로 낮았고, 檮根白皮는 9회로 그 사용빈도가 높았다.

임상적으로 대하의 治方으로 많이 언급되며 대표적인 적응증으로 대하를 설명하고 있는 처방이 龍膽瀉肝湯이다³⁶⁾. 또 한방부인과학¹⁾에서도 대하의 치료원칙에 대해서 대하의 원인은 다양하나 임상상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濕熱 혹은 痰濕이 胞宮에 下注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아 燥濕化痰시켜야 할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정신적 자극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調肝理氣를 위주로 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런 근거로 보아 清熱藥이나 解表藥, 利水滲濕藥 등의 본초들이 가장 많이 쓰였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조사 결과는 補益藥의 白芍藥, 甘草, 當歸, 白朮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茯苓이나 陳皮도 많이 사용되긴 했으나, 補益藥의 빈도가 높았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대하의 병인병기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의부인과학(상)³⁶⁾에서 대하의 병인병기를 전신장부의 기능장애와 관련시켜, 즉 腎氣가 不足하거나 脾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 任脈이 약하게 되고 帶脈의 기능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어 몸의 水濕이 생식기로 흘러 내려가 體外로 대하가 많이 흐르게 된다고 하였다. 즉 허약함

을 원인으로 본다면 보익약제의 多用이 설명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용된 약물을 본초학적인 분류로 보면 補益藥, 淸熱藥, 解表藥, 收澁藥, 溫裏藥, 理氣藥, 利水滲濕藥의 순으로 많이 응용되었다. 자세히 보자면 發散風寒藥, 淸熱解毒藥, 淸熱燥濕藥, 溫裏藥, 理氣藥, 補氣藥, 補陽藥, 澁精止帶縮尿藥 등에서 분류별로 5개 이상의 약물이 사용되어 사용빈도가 높았다. 특히 澁精止帶縮尿藥은 총 9개의 약물 중 5개의 약물이 사용되어 그 활용빈도가 크다. 백¹¹⁾ 등의 연구에서는 白帶下 治方의 구성 약물을 본초학적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로 補益藥, 祛濕藥, 淸熱藥, 收澁藥, 解表藥, 理氣藥 의 順으로 다용되었는데 補益藥 중에는 白芍藥, 白朮, 當歸, 人蔘, 甘草 등이, 滲濕藥 중에는 蒼朮, 茯苓, 車前子, 澤瀉 등이, 淸熱藥 중에는 黃芩, 黃柏, 牡丹皮, 梔子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용처방의 구성약물의 본초학적 분류로 보면 補益藥, 淸熱藥, 解表藥, 收澁藥, 溫裏藥, 理氣藥, 利水滲濕藥의 순으로 많이 응용되었는데, 補益藥 중에는 白芍藥, 甘草, 當歸, 人蔘, 山藥, 熟地黃 등이, 淸熱藥 중에는 黃柏, 梔子, 黃芩 등이, 解表藥 중에는 柴胡, 白芷 등이, 收澁藥 중에는 檮根白皮, 山茱萸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와 비교하면 백 등의 연구에서는 滲濕藥이 다용된 것으로 조사된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백의 연구가 白帶下의 처방이 연구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전체의 帶下治方에는 滲濕藥보다는 淸熱藥이 多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하의 처방분석을 통해서 많이 사용된 약제들을 알아보는 본 연구를 통해서 이후의 대하치료의 실험연구나 임상연구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고찰해 보자면 가장 많이 사용된 白芍藥이나 甘草, 茯苓, 陳皮, 當歸, 白朮 등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겠다. 또 7회이상 다용된 약물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四物湯, 四君子湯, 二陳湯, 六味地黃丸의 구성 약물을 제외하고 帶下에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약물로 꼽히는 乾薑, 蒼朮, 檮根白皮, 黃柏, 香附子, 柴胡, 梔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문자그대로 많이 사용된 檮根白皮를 포함한 澁精止帶縮尿藥의 약제들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약제들의 단독연구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양의학에서는 기질성대하의 주된 원인을 각종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보는데 한방처방에서도 이와 연관시켜 보자면 청열약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결과는 보익약에 속하는 약물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차별되어 허약함을 포함으로써 이런 감염성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상실험이나 실험실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의 중심이 된 양¹²⁾의 논문에서 언급한 문헌이 고전문헌 위주로 정리되어 현대의 문헌들이 언급되지 않은 점과, 양¹²⁾의 논문이 帶下의 色態別 分類나 原因別 分類에 따라 治方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한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帶下

의 治方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전체대하의 치료처방의 다용약물을 분석한 연구는 이 보고가 처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연구나 임상연구에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한 이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婦人帶下의 治療에 사용되는 처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을 漢代의 金匱要略부터 靑代의 女科切要까지 총 21편까지 考察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많이 쓰인 약물은 白芍藥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甘草가 15회, 白茯苓이 13회, 當歸, 陳皮가 11회, 白朮이 10회, 乾薑, 蒼朮, 檮根白皮, 黃柏, 人蔘, 香附子 등이 9회, 山藥, 山茱萸, 柴胡, 川芎, 梔子が 8회, 熟地黄, 半夏가 7회, 小茴香, 黃芩, 肉桂, 白芷가 5회로 다용된 약물이다.
2. 7회이상 다용된 약물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四物湯, 四君子湯, 二陳湯, 六味地黄丸의 구성약물을 제외하고 帶下에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약물로는 乾薑, 蒼朮, 檮根白皮, 黃柏, 香附子, 柴胡, 梔子 등이다.
3. 다용된 약물을 본초학적인 분류로 보면 補益藥이 19개, 淸熱藥이 18개, 解表藥이 10개, 收澁藥이 9개, 溫裏藥이 7개 등의 순으로 많이 쓰였다. 특히 澁精止帶縮尿藥은 총 9개의 약물 중 5개의 약물이 사용되어 다른 질환에 비해 활용빈도가 컸다.

4. 종합해보자면 이후의 단일약재의 실험연구나 임상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약재로는 白芍藥이나 甘草, 茯苓, 陳皮, 當歸, 白朮 등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들이 가능하겠고, 대하에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乾薑, 蒼朮, 檮根白皮, 黃柏, 香附子, 柴胡, 梔子나 澁精止帶縮尿藥 속하는 약물들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익약과 청열약의 효능비교도 한의학의 특징점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투 고 일 : 2005년 07월 28일
- 심 사 일 : 2005년 08월 02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8월 10일

參考文獻

1. 송병기. 韓方婦人科學. 서울: 행림출판사. 1994; 2, 30, 232, 234.
2. 홍원식. 정교 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1; 74.
3. 傅山. 傅青主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81-82.
4. 조병구, 이경섭, 송병기. 帶下患者의 藥針治療에 대한 臨床的 考察. 韓方婦人科學會誌. 1996; 9(1): 155-160.
5. 최은수 등. 帶下의 原因에 관한 文獻的 考察. 韓方婦人科學會誌. 1993; 7(1): 47-68.
6. 유심근. 帶下 유발 原因의 文獻的 考察. 韓方婦人科學會誌. 1989; 3(1): 27-32.
7. 李珩贊 등. 婦人帶下의 病因病理 및 不妊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연구. 韓方婦人科學會誌. 1987; 1(1): 21-31.

8. 장미경, 이경섭, 송병기. 帶下에 對한 東西醫學의 比較. 韓方婦人科學會誌. 1998; 11(1): 83-92.
9. 양해원 등. 黃帶下의 原因, 症狀, 治法, 治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3; 6(2): 203-217.
10. 성연수 등. 帶下治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3; 6(2): 145-170.
11. 백성준 등. 白帶下의 治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3; 6(2): 203-218.
12. 양기호. 帶下의 處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순천대학교논문집. 1999; 18: 325-329.
13. 전국한의대 본초학교실 공편. 본초학. 서울: 영림사. 1991.
14. 樓英. 醫學綱目. 北京: 중국중의약출판사. 1996; 790-791.
15. 陳子明. 婦人良方大全. 北京: 문광도서유한공사. 33.
16. 심금오. 沈氏尊生書. 北京: 중국중의약출판사. 1997.
17.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2; 470-471.
18. 吳謙. 醫宗金鑑(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1161.
19.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0; 741.
20.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340-33.
21. 張仲景. 金匱要略. 서울: 계축문화사. 1977; 183-188.
22.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740.
23. 宋太宗命選.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79; 2320.
24. 武之望. 濟陰綱目. 서울: 일증사. 1992; 103, 111.
25. 朱橚. 普濟方 第八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384.
26. 虞搏. 醫學正傳. 서울: 정보사. 1986; 344-346.
27. 張介賓. 經方大綱47기졸준위편.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9; 1283, 1268, 1325, 1090.
28. 經方大綱48기졸준위편. 鄉藥集成方.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0; 672.
29. 張璐. 張氏醫通.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 743.
30.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台北: 旋風出版社. 1975; 4.
31. 孫久齡. 婦科證治. 石家莊: 하북인민출판사. 1983; 99-101.
32. 오수원. 女科切要.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18.
33. 萬表. 萬氏濟世良方.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 282-283.
34.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서울: 대성문화사. 975-979.
35. 姜明孜. 臨床產婦科學. 서울: 정보사. 1989; 42-45, 162-169.
36. 韓方부인과학편찬위원회. 韓方부인과학.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1; 256-265.